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찬송	인 도 자
※ 경배찬송 32장(만유의 주재) 다 갈 이
※ 교 독 문128(사순절5) 다 갈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276장(아버지여 이 죄인을)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박세일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왜 날 사랑하나”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경건과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태복음 3:1-3 정숙자권사
찬 양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회개하라! >	
기 도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255장(너희 죄 흉악하나) 다 갈 이
봉 헌 (6 구역) 다 갈 이
봉헌기도담임목사
친교와소식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담임목사
※ 축 복 송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사순절21일 특별새벽기도회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기 도 / 한마음기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인도 : 최세열목사 기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딤편6:1-21 말 씬 / 최세열목사 “믿음의 선한싸움”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기도회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 배 위 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원혜경집사
	현금위원	3월 심문자 윤승호 나금옥 김영숙 4월 엄정현 강국환 노순영 정재영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식당봉사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마리아회	다 음 주 찬양예배기도	1부	말 은 이
	헌신찬양	금주 6 구역	다음주	2부	이종봉권사
					한마음기도
					7 구역

회개하라 ! / 갈라디아서 5:22,23

기독교신앙 안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요한의 첫 외침(마3:2)과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첫 외침(마 4:17)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야 합니다. 회개는 구약에서(슈브) 1,000회 이상 사용되었고, 신약(메타노이 아)에서는 34회 나오는 말로서 (되)돌아가다. 회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께로 '되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경험 그 이상입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요한의 선포 속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1. 회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의 역사를 깨고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40:3절의 말 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와 전령으로서 외치고 있습 니다. 요한의 외침은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인 메시아를 맞이 하기 위하여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에 유대인들은 응답하여 요단강으로 모여들었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왕의 길,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개란 자복함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 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 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 는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정당화 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 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 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 합니다'(시51:4)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회개가 가능합니다.

3.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성령을 지 배하던 종교지도자 사두개인들 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요한은 '독사의 자 식들'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간교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 의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뿌리 에 도끼가 놓여있는 것과 같으니 속히 참된 회개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는 가진 것을 나눔 것을, 세리들에게는 부 당한 세금을 거두지 말 것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고 말 합니다. 이는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4. 회개는 천국의 삶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천국의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이 왔다”는 말씀은 곧 왕이 오시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회개하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순절 다섯째 주(4월 6일)

제15과 당연 하거니와(누가복음 23장 26-43절)

(함께 읽을 말씀 : 전도서 7:20, 시편32:1, 요한일서 12:8-10)

말씀묵상

1.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다른 두 명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부릅니다(눅 23:32). 결국, 주님은 악을 행한 사 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 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 사람이 웬만하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착해지는 법입니다. 그러 나 이 사람은 도무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놓 여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나 남은 한 사람은 그 동료를 꾸짖으며 말합니 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지는 일이 없 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2. 이 두 사람은 모두 악을 저질렀고 그 일로 둘 다 십자가 에 달렸습니 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께 청합 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당신 나라가 임하는 때 나를 기억해주소서'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 해주셨습니다.

3. 예수님 곁에 달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약속받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 비결을 알 수 있 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현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라고 했 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택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 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깨끗해 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악한 행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사람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도 먼저 자신의 허물을 찾고 돌이킵시다. 주님 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낙원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단지 내세적인 것으로만 여겨왔다면 잘못된 생각 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눅17:21)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은 회개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 곧 회개의 영을 부 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의 다스림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온 교우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부활절 세례자를 위한 교육이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12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서 성전대청소를 합니다.
6. 부활절찬양예배는 신도회별 찬양으로 드립니다. 각 신도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박지영 강항구 류종란 강국환 김용선 정선례 김선영 박윤희 안진영 심복례 최승만 김혜경 신공님 김춘자 영동순 윤승호 최경선 한상호 차소라 박세일 양희임
- 감사헌금 : 김동현 한옥자 김범진 박광섭 박희순 최영랑 이강영 박정일 이종춘 심문자 무명2 (일천번제) 김동현 (생일) 김선영 이윤선 박희순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김혜경 최승만 심복례 이종봉 이춘호 이현화 이윤화 이선래 이영란 신공님 루디아 베드로 김선자
- 비전씨앗 : 김기희 김병국 박기환 한옥자 방옥남 허 웅 김순님 이영란 이종봉 이춘호 김한순 배영인 안채민 노순영 최세열 조성순 강항구 류종란 김동현 김애자 김혜경 박상귀 박홍만 정정희 양희임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심복례	4	16,000	350	김금자	7	강은순	이영선	김성희	7	13,000	100	한국회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7	23,000	100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4	22,000	90	김장숙
3	이춘호	함경숙	함경숙	2	10,000	300	박경자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3	16,000	200	박치국
4	김기희	최경선	임애경	4	14,000	30		10	장영분	노순영	김애경	4	16,000	70	장영분
5	이문순	원혜경	한은미	4	18,000	100	이문순	계				43	165,000	1765	
6	류종란	김애자	김애자	4	17,000	395	강진숙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

웨슬레가 감리교를 처음으로 창시했을 때 교회 어느 곳이든지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천에서도 설교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 두고 예배를 드리고 끝낼 수 있었습니 다.

어느 토요일 날 동네사람 하나가 그 예배드리는 창고에 미리 들어와서 빈 가마니 속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시간에 동네사람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그 문을 열어줌으로서 예배 를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고 주일이 다 가왔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한 나이든 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흐느 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가마니 안 이었습니다. 가마니를 열었을 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한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마니 속에서 기도를 듣는 데 그 기도가 자기에게 하는 말로서 들린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죄인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부두에 매어진 자기 보 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보트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너 시간쯤 계속해서 앞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술기운이 깨 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와 있어야 하는 보트가 여 전히 부두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이 달렸는데 그 자리에 있 습니다. 웬일인가 하여 보았더니 부두에 배가 그대로 매어져 있었던 것 입니다. 로프를 풀지 않고 계속 달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뱅뱅거리며 앞 으로 항해를 했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엎어맨 줄을 풀기 전까지는 아무리 나아가려 해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엎어매고 있는 죄를 회개 하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 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14 2014.4.6.

4월 교회 행사 안내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르다회 / 4월 27일
2. 해든솔 선교활동 - 4월 12일 오전8시30분
3. 종려주일 성전대청소 - 4월 13일(점심식사 후)
- 이날 찬양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4.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 4월 14일-18일까지 매일 저녁8시
5. 부활주일 - 4월 20일
6. 부활절 세례식 - 4월 20일 2부 예배(11시) 시간.
7. 부활주일 찬양예배 -
각 신도회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기간 : 3월 23일(주일)-4월 12일(토)
* 새벽5시, 교회본당

* 전교인체육대회
- 일시 : 5월 11일(아버이주일)
- 주관 : 친교부, 바울회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

*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 3월 28일 - 4월 12일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회복과 환경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종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